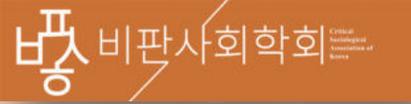


비판사회학 소식지



권두언

2022 가을국제학술대회



■ 임운택
(학회장/계명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2007/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위태롭게 유지되어온 자본주의 위기관리의 대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파국’이 아닌 ‘전환’으로 이어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지만 그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갈등과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칼 폴라니는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이중운동’(double movement) 명제를 통해 시장의 자기조정성에 대한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운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속화한 자본주의 위기와 이에 대한 위기관리는 현재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른바 ‘디지털 전환’과 ‘그린전환’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EU가 추구하는 ‘그린뉴딜’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과 함께 쌍둥이 전환(Twin Transformation)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 일본(‘디지털 어젠다 2030’), 한국(‘한국판 뉴딜’) 역시 자본주의의 현대화 전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의 전환이 아닌 자본주의의 성장유형과 생산방식,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전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대전환 과정에서 지난 수년 동안 글로벌 시민사회는 불행하게도 ‘포스트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노동시민의 프레카리아트화 등 민주화의 성과와 역행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면 계속)

발행인: 임운택 / 편집인: 홍성태
주소: 03980 서울 마포구 동교로 51길 77 2층
비판사회학회
Homepage: www.criso.or.kr
E-mail: sansahak1984@gmail.com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22년 비판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자본주의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11월 4일, 5일 양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연구자는 물론 미국, 독일, 일본의 저명 사회학자가 참여하여 전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중전환’ 이행전략의 실태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번 가을학술대회가 일회적 논의의 장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사회의 발전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이론과 실천의 사회적 기획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술대회를 지원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교육연구단,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미래연구소, 한국이론사회학회, 서울시 교육청, 도서출판 한울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비판사회학회 회장
임운택 드림

2022 가을국제학술대회
안내 페이지로 이동

2022년 비판사회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

21세기 자본주의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

Digital and Green Transformation and the Future of Socie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pitalism



일 시 2022년 11월 4-5일(금, 토)

장 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303, 311, 415호 및 국제회의실

참여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10월 15-25일 <https://forms.gle/bbv8xSb6i1G3BWuh9>

사전등록 참가비

- 기관후원 등 지원금 이용: 5만원
- 일반: 3만원
- 대학원생: 1만원

사전등록 이후 현장 등록시

- 일반: 5만원
- 대학원생: 3만원



사전등록 QR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도서출판 한울 | 서울시교육청

공동주최: 비판사회학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이론사회학회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교육연구단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미래사회연구소

11월 4일 (금)

09:30-10:00	등록(사회과학관 311호 앞)		
10:00-10:30	개회인사 및 축사. 임운택(비평사회학회장),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삼현(한양대 사회학과 학과장) 사회과학관 311호		
	기획 1. 녹색사회 전환과 한국 사회의 과제 사회과학관 303호	기획+일반 1.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과 노동자-전환, 융합, 그리고 불일치 사회과학관 311호	일반 2. 사회이론 사회과학관 415호
10:30-12:30	<p>사회: 이상현(한신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민정(충남대) 기후위기 시대,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시장화된 재생에너지와 그 대안 김민정(충남대)·이상준(연세대) 한국의 녹색 사회 전환과 사회운동의 대응: 청년 기후운동을 중심으로 <p>토론: 류승민(민주노동연구원), 김동주(환경사회학회), 한재각(기후정의동맹)</p>	<p>사회: 유삼현(한양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수민(연세대) 전통적 불안정 노동과 플랫폼 노동의 결합: 한국 배달 노동의 사례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스마트홈(Smart home)의 기술정치와 가사노동 류연미(서울대)·노성철(사이타마대)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자의 커리어와 일의 의미: 청년 데이터 라벨러를 중심으로 <p>토론: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성익(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영선(노동시간센터)</p>	<p>사회: 정태석(전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은정(동국대) 다원주의 사회과학 모색 김원태(서울대) 비판이론의 정치경제학 비판 현우식(제주대) 주체론의 곤경과 포스트마르크스주의라는 과제: 라클라우와 무페의 논의를 중심으로 <p>토론: 조은주(전북대), 박지훈(중앙대), 권범철(서울시립대)</p>
12:30-13:30	점심: 생활과학대학(401동, 7층 식당)		
	기획 2. 쌍둥이 전환과 한국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사회과학관 303호	기획+일반 3. 자본주의 전환과 돌봄 사회과학관 311호	기획+일반 4. 사회적 재난의 정치 사회과학관 415호
13:30-15:30	<p>사회: 지주형(경남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도균(제주대) 디지털/그린 전환 시대의 국가의 역할: 탈성장과 그린 뉴딜 논의를 중심으로 김명수(전남대) '금융에 배태된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 조정전략과 금융 박찬중(충남대) 한국 수출주의의 전환과 중소기업부문의 재편 <p>토론: 정준호(강원대),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p>	<p>사회: 박정미(충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광근(동국대) 카니발 자본주의: 자본 축적의 은밀한 장소들 김현영(제주대) 넌시 프레이저의 자본주의 이해: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중심으로 조은주(전북대) '가족 없는 자본주의'와 제2차 인구학적 전환 <p>토론: 김경필(고려대), 홍찬숙(서울대),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p>	<p>사회: 윤충로(한국학중앙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진영(성공회대) 환경재난에서 '법적 피해자 되기'의 정치: 가슴기 살균제와 장점마을 사례 비교 김진이(서강대)·오세일(서강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투쟁과 제도화: 세월호와 대구지하철참사 기억공간 비교 분석 <p>토론: 정수남(전남대), 강인화(서울대)</p>
15:30-15:50	휴식		
	기획3. 국경의 일상화, 국가-시민사회의 역할 사회과학관 303호	일반5. 정치와 사회변화 사회과학관 311호	특별. 집담회: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 사회과학관 415호
15:50-17:50	<p>사회: 이태정(성공회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선영(충북대) "주변에서 중심으로?: 코로나 시기 이주민 공동체의 '시민 되기' 프로젝트 연구" 육주원(경북대) 충돌하는 권리, 경합하는 피해자성: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사례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위치성 <p>토론: 김지윤(한성대), 한준성(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p>	<p>사회: 윤상철(한신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재원(경상국립대) 신장위구르자치구 민족문제: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유성희(한경대) A Legacy of the Nineteenth Century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into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hina's Capitalist Transition 신원철(부산대) 스웨덴 노동시장제도의 재편과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p>토론: 정규식(성공회대), 백승욱(중앙대), 조효래(창원대)</p>	<p>사회: 주은우(중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수복(사회학자/작가) 비판사회학의 계보 <p>토론: 지주형(경남대), 김동춘(성공회대), 오유석(성공회대)</p>

11월 5일 (토)

09:00-09:40	등록(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09:40-12:00	Plenary Session: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 and Conflicts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환영인사 / 사회: 임운택(비판사회학회장, 계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laus Dörre (Friedrich Schiller University Jena)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in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 Conflicts • 김선철 (기후정의 활동가) Green Growth as Climate Crisis Denial: Green New Deal and Carbon Neutral Strategies in South Korea • Hidehiro Yamamoto (University of Tsukuba) Japan's Democracy under the Digital and Green Transformation • 정태석 (전북대) Ecological Turn and Just Transition - Is a Red-Green Alliance Possible? 토론: 서영표(제주대), 홍덕화(충북대)	
12:00-13:00	점심: 생활과학대학(401동, 7층 식당)	
13:00-15:00	International Session 1. Twin Transformation and Economy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사회: 이주희(이화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ilipp Staab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Counter-Hegemonic Neoliberalism: The EU-trajectory through the Twin Transition • 이준구(한양대) Global Value Chains and the Digital and Green Transition • Aron Benanav(Syracuse University)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in the Post-Covid Era • 임운택·이균호(계명대) Taylorisation of Work in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Korean Auto Parts Industry 토론: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김공희(경상국립대)	기획 4. 전환시대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사회과학관(504동) 311호 사회: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세진(희망제작소) 지방 소멸 위기 시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 양승훈(경남대) 공간 분업과 지방대 여학생 일자리 • 신호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봄과 사회적 경제 토론: 황세원(일인연구소),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가람(건국대)
	15:00-15:15 휴식	
15:15-17:15	International Session 2. Global Capitalism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 East Asia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사회: 이희영(대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Fung Hung(Johns Hopkins University) Frenemies in Global Capitalism: The Economic and Hi-tech Origins of US-China Rivalry • 강민형(노동연구원)·이시림(연세대) Growth Strategy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s Lead Manufacturing Firms • Sae Okura(University of Tsukuba) Japanese Women's Movements in the Digital Era 토론: 최인이(충남대), 황현일(창원대)	기획 5. '그린전환'의 통치성과 인간 너머의 과제 사회과학관(504동) 311호 사회: 김지혜(서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그린 사회 전환의 기술 독성 문제 • 김준수(카이스트) 과물 물고기: 경합하는 미국 외래종 국가생태학 지식의 생산과 재현 • 전원근(제주대)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기: 인류세의 관상어 산업과 물생활 주제성 • 황진태(동일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인간 너머의 국가론 모색 토론: 박진희(동국대), 원주영(포스텍), 송은주(이화여대), 김민정(충남대)
	17:15-17:30 휴식	
17:30-18:30	Closing Session.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사회: 신광영(중앙대) 토론: Klaus Dörre(Friedrich Schiller University Jena), Ho-Fung Hung(Johns Hopkins University), Woontaek Lim(Keimyung University), Minhyoung Kang (Korea Labor Institute)	
18:30-	저녁 만찬: 이십사절기(701동, HIT 6층)	

〈2022 하계 학술대회 후기〉

새로운 질문들, 그리고 공동의 비판 - 하계 학술대회 후기 -

■ 김동현
 (고려대 사회학과 석사)

2022년 8월 18일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비판사회학회 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비판사회학의 새로운 질문들’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비판사회학회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BK21 ‘파편사회의 사회적 연대와 통합’ 사업팀이 공동주최하였고, 대학원생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9개 세션(12편의 연구논문과 10편의 연구계획)과 ‘MZ세대와 노동운동의 재생산’ 주제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에 대면 학술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여전한 전염병의 위세 탓에 일부 발표자, 토론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세션 도중 발표자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의 화면 공유가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발표자께서는 당황한 기색 없이 음성만으로 차분히 발표를 이어나갔다. 2년의 팬데믹에 적응했기 때문이었는지 하여간 익숙한 예외상황(?)이 있었지만, 원활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주최 측과 스태프들께 우선 늦은 감사 인사를 올린다.

발표자나 토론자도 아닐뿐더러 학술대회 준비 과정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은 채, 완전히 ‘청중’으로 참여한 내가 후기를 작성하는 게 사실 겸연쩍기도 하다. 연구 작업물을 작성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깊어졌을 발표자분들의 사유를 담아낼 자리를 나의 간편한 인상비평이 대신하는 것 같아 자못 죄송한 마음이다. 여기서 나는 다만 이 글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청중의 또 다른 ‘질문’이 되기를 바란다는 공색한 변명을 앞세울 따름이다.

대학원생의 연구 작업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계 학술대회가 ‘새로운 질문들’을 가리킬 때, ‘새로움’은 당장 ‘대학원생’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수식(“새로운 대학원생의” 질문)은 어떤 시간성에 대한 상상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복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응시하는 주체를 상상할 때,

(다음 면 계속)

흔히 ‘학문 후속세대’라는 명명이 따라붙는 대학원생에게는 기존의 시선과 다른 시간대를 공유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 걸까? 물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이야 결코 무시할 게 못 되지만, 우리가 대학원생이라는 점이 ‘새로움’을 담보한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대학원생’을 그 시간성(“후속”)에 맞추어 하나로 묶어보려 해도, 그 안에는 너무 이질적인 시간대들이 겹쳐 있을뿐더러, 반복하는 사회의 흐름 또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학술대회에도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젠더 규범’, ‘국가폭력’ 등 익숙한 개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운동과 체계를 규정하는 힘으로 논의되지 않았던가. 그러니 학문 후속세대로서 대학원생이라는 상상된 정체성이 내재적으로 새로움을 담보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낯선 개념을 찾아야 한다는 성급함을 주장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물며 필요한 새로운 개념을 생산하는 과제는 대학원생에 제한되지도 않을 테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내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기존의 개념이 ‘비(非)개념’이지 않기 위한 지적 작업/개념적 사유를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젠더 규범’ 등의 ‘구조들’은 사회의 변화를 통과하면서도 다시 기존과 같이, 혹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원생도 그 규정의 재현된 효과를 동시에 관찰한다. 따라서 내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체험한 ‘새로움’은 기존 사회과학과 단절적으로 새로운 우리를 찾았다거나 참신한 주제를 발견하였다는 데서 기인하지 않았다. 그보다 ‘새로움’의 전제는 변화하는 정세 가운데 기존의 이론적 궤적 위에서 시도된 다양한 비판적 접근의 과정들을 마주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따름이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주체는 대학원생일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앞서 논했듯 어떤 당위와 결부된 경계 설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이번 학술대회와 같이 대학원생의 질문을 공유하고 종합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면 심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의 재생산과 심화에 대학원생 집단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세대’의 교체나 각자의 의지, 개별화된 전문화에 의해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대학원생을 어떤 연구 공동체로 인식할 것인가는 ‘정치’와 ‘형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예컨대 어떤 창작물—영화의 의미 형성 과정을 생각해보자. 어느 영화든 적어도 세 가지 시선(해석)이 중첩되고 또 각 시선은 따로, 또 종합되어 영화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장면을 바라보는 인물의 시선, 이를 담는 카메라의 시선, 그리고 극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 여기서 시선의 형성과 교차는 배역, 카메라, 스크린이라는 장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장치 자체가 의미 형성에 결정적이기도 하다.) 과한 은유일 수 있겠으나, 기존 사회과학의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는 비판사회학 역시 어떠한 장치도 없이 교차하고 종합할 수는 없어 보인다. 파편화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전문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선언보다, 도전적인 지적 작업의 집단으로 대학원생을 호명하고 우리를 종합하여 소통하게 하는 과정/장치에서 ‘새로운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면 계속)

이번 학술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며 비판적 연구 공동체로서 대학원생 집단을 재생산하는 장치로써 학회/학술대회를 상상해 보았다. 물론 누군가는 1980~90년대, 사회 체제의 많은 규정들이 해체되고 등장하는 전환기와 현재는 다른 때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 대학과 대학원의 의미 역시 변화하였으므로 공상에 불과하다 하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또한 결국 상상된 긴급함과 의지만을 편리하게 앞세우는 것은 아닐지 벌써 의구심이 든다. 그만큼 이 글은 간편한 인상비평에 불과하고, 불충분한 논의일 테다. 그런데 현재의 전환과 위기들, 반복되는 소극 가운데 심화하는 비극들은 정말 비판사회학의 새로운 질문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상대화하며 비판사회학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해 보인다. 현재의 사회변동이 새로운 비판적 질문을 요구한다면, ‘비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정치, 그리고 그 조건과 정세는 무엇인지 따지는 작업만이 따르게 될 뿐이다.

무엇보다 이상의 후기는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훌륭한 발표와 지적 작업물을 마주하며 다음을 기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기대가 곧 긍정으로 전화할 수는 없었고, 거기에는 다음의 질문들이 놓여 있었다. 다양한 역사의 층위들이 뒤섞여 흐르는 가운데, 이를 관찰하고 설명할 우리의 연구는 종합될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기반은 어디에 있나? 요컨대 더 나은 공동의 비판적 지식 생산 작업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 조급한 기획, 선부른 ‘대안’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흡한 후기로 남을 이 질문이 현재의 질문들과 함께 변화를 통과하는 ‘구조들’에 착근하여 서사를 구성하고 설명을 생산하는 언어에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귀결점보다는 현실의 운동이 중요할 것이다.

(끝)



■ 2022 하계 학술대회

세션 1. 보건 사회: 김혜경(전북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하지우 (서울대)	대항 헤게모니로서 건강의 공공성: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 (성공회대)
이승연 (중앙대)	산후우울증의 '계보학': 의료화와 생의료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정연 (서울여대)

세션 2. 문화 사회: 이정은(창원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서경원 (전북대)	결혼식 역할 대행을 통해 본 인상 관리와 감정 수행성 체계: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를 중심으로	최선영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송해리 (경상국립대)	간호사 '태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제도적 문화기술지 접근	김종우 (연세대)

세션 3. 기술 사회: 임운택(계명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이균호 (계명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숙련 구조의 변화 속 직업훈련의 실태와 효과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황현일 (창원대)
이시림 (연세대)	플랫폼을 통한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독점화: BTS와 HYBE의 역설	김철식 (한국학중앙 연구원)

세션 4. 청년 사회: 김명수(전남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황채린 (전북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드러나는 청년 1인 가구의 취약성	김도균 (제주대)
박선미 (경북대)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 거버넌스: 대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명수 (전남대)

세션 5. 노동 사회: 정철희(전북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오혜진 (고려대)	한국의 노동자 집단은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는가: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 간 통합적 접근	강민형 (연세대)
이재연 (연세대)	모순적 요구에 놓인 여성의 노동: 일 지향적 보수주의 젠더규범과 여성의 노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조은주 (전북대)

세션 6. 정치 사회: 이희영(대구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이상준 (연세대)	'당사자주의'를 넘어선 연대: 청년 기후운동의 가능성	최규연 (중앙대)
진영은 (경상국립대)		박지훈 (중앙대)

특별세션 사회: 노중기(한신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김우식 (금속노조)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의 노조활동 경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플랫폼노동 조직화 사례로 본 노동운동	김주호 (경상국립대)

세션 7. 돌봄 사회: 김명수(전남대)

발표자	연구계획 제목	토론자
김지민 (연세대)	돌봄노동이 플랫폼을 만났을 때: 아이돌봄 매칭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사례 연구	김주호 (경상국립대)
김종훈 (서울대)		알코올중독자의 고통과 자기서사 구축 및 사회적 돌봄을 통한 치유: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AA)' 현장을 중심으로
지은주 (중앙대)	만성 조현병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부담형태와 인식	이정연 (서울여대)
왕가기 (중앙대)	초국적 이주자의 가족 역할의 변동: 제한조선족 가족의 돌봄 문제를 중심으로	육주원 (경북대)

세션 9. 정체성 사회: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발표자	연구계획 제목	토론자
강현정 (고려대)	혐오가 사회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차별금지법 제정반대운동 사례 분석	이정은 (창원대)
천거양 (전북대)		초기자금 불평등 조건에서 불공정의 원인과 집단 정체성이 협력에 미치는 효과: 공공재 게임 실험연구
조소연 (중앙대)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혼' 법제화의 위치	홍성태 (고려대)

세션 10. 플랫폼 사회: 황현일(창원대)

발표자	연구계획 제목	토론자
채혜인 (중앙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경험: 가사노동의 외주화를 중심으로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연 (전북대)		인터넷 밈과 결합한 혐오에 관한 연구
박정윤 (경북대)	데이팅앱 이용자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실천	정수남 (전남대)

□ 후원해주신 임운택, 최인이, 노중기, 정태석, 박상희, 황현일 선생님과 익명의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학술행사



25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한국 노동운동
평가와 진단

2022년 10월 15일(토) 15~17시

사회 : 최인이(충남대)

발표① : 이병훈(중앙대)
"한국 노동운동의 평가와 혁신과제"
발표② : 노중기(한신대)
"코로나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
토론 : 강민형(한국노동연구원), 황현일(창원대)

참가 | Zoom
ID: 815 2916 5707 PW: 557676
문의 : sansahak1984@gmail.com



한국 노동운동 평가와 진단

- * 일시: 2022년 10월 15일 (토) 15:00~17:00
- * 장소: 서울역 제이케이비즈센터 회의실
- * 사회: 최인이(충남대)
- * 발표: 1. 이병훈(중앙대) "한국 노동운동의 평가와 혁신과제"
2. 노중기(한신대) "코로나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
- * 토론: 강민형(한국노동연구원), 황현일(창원대)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2030 통일교육

- * 일시: 2022년 10월 31일 (월) 14:00~17:10
- * 장소: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 사회: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 * 발표: 1. 신현우(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 중세의 탈문자적 문맹화:
알고리즘과 블록체인은 어떻게 활동을 포섭하는가"
2. 김선기(연세대)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과 정보 취득 방식"
- * 토론: 배재훈(피츠버그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엄현숙(국립통일교육원)

➔ 비판사회학회와 국립통일교육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션입니다.

제1세션(14:10~15:30)
새로운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2030세대의 정보획득 방식

회원 신규 박사학위논문 소개

신장위구르자치구 민족문제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 김재원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사회학 전공 박사, 2022년 8월)

본 연구는 중국국가통계국과 신장위구르자치구 통계국에서 작성한 통계연감을 문헌과 언론매체 보도 등을 자료로 수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으로 내부 식민지 이론을 채택한다. 중국 정부는 신장 통치의 역사적 정당성을 한, 당의 서역 지배에서 찾고, 자신이 주도한 신장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내부식민지론을 적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는 중국의 원료공급지라는 점에서 내부 식민지적 관점에 부합한다고 본다.

연구가설 2) 청의 신장 통치와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는 유사하다.

연구가설 3) 중국 정부와 위구르 민족해방운동가 모두 신장 한인(한족, Han-chinese)은 중국공산당과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고 본다.

연구가설 4) 중국 정부의 개발정책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2022년 7월 15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신장 방문은 중국 정부가 신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장은 이전보다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 또는 한인 거주민이 많은 지 여부에 따라 신장 각 지역의 소득 격차는 매우 심하다. 특히 위구르인들의 경제적 소외가 심하다 학력이 높거나 신장 경제성장의 혜택을 본 위구르 중간계급조차 중국 정부의 의심을 받는다.

한편, 신장위구르 민족해방운동의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친서방이든 친이슬람주의 성향이든 운동이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신장 현지의 위구르인과 비한인 소수민족들과 괴리가 심하다. 하지만 망명지 미국에서 일함 토티 구명운동을 하는 일함 자흐라가 본래 아버지 일함 토티의 연구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그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운동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을 보면, 위구르 민족해방운동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성격도 변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연구가설 4)처럼 중국 정부의 신장 경제개발에서 나타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민족해방운동이 외부세력이 관여하는 운동이다.”라고 규정한 중국 정부의 논리가 약해질 수도 있다. 그 시기가 올 경우, “신장 한인은 중국공산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연구가설 3)도 흔들릴 수도 있다.

주제어: 신장위구르자치구, 위구르인, 한인, 민족문제, 저발전, 불평등, 민족해방운동, 내부식민지론

(끝)

〈경제와사회〉 135호 발간



『경제와사회』 135호(2022년 가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의 비애

■ **주은우**
 (편집위원장, 중앙대)

종종 조롱의 의미로 역이용당하는 말이 되긴 했지만, ‘촛불정부’가 출범하며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어쨌거나 일정 정도 실현된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K방역’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K방산’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제 무역대국 한국은 손꼽히는 무기수출국까지 되었다. 따져볼 것이야 적지 않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확실하고, 유튜브에 소위 ‘국뽕’ 동영상들이 그토록 넘쳐나는 것도 허황된 나르시시즘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을 쏘아 올리며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할 포부를 펼치는 동안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갖가지 구조적 문제가 덧쌓이고 다양한 사회갈등이 날로 격화되기만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기가 쉽지 않고 가상공간에서든 물리적 현실공간에서든 일상생활마저 살얼음판을 밟는 기분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갈등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런 현실은 법의 권위가 추락한 현실과도 적지 아니 연동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도 최선진국 미국과 자웅을 겨룰 만한 ‘소송사회’가 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름도 모를 온갖 사회단체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이 뻔질나게 뉴스 보도를 장식하고, 기업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권력다툼마저 심심하면 법정으로 향한다. 이렇게 각종 갈등의 사법화가 증대함과 나란히, 법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고 원칙은 존중받지 못하는, 역설적이지만 당연한 현실이 전개된다.

(다음 면 계속)

유감스럽게도, 촛불정부와 그 지지 세력 역시 후자의 현실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때로는 개혁의 열정으로 인해, 때로는 당장의 이해득실을 위해, 또 때로는 그 이상의 의심을 스스로 야기하면서, 민주화와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이 법과 원칙을 소홀히 하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문란케 만들며 자신이 만든 규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로 집결했던 다양한 시민들이 일치해 제기했던 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항의였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요구였다는 점에서, 또 최근 몇 년 사이 지배적 화두가 된 공정 담론이란 게임의 규칙을 지키라는 요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지점이라 할 것이고, 이를 깨달아야 할 터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록 ‘법과 질서’가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구호라 할지라도, 결국 피억압자와 사회적 약자야말로 법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또,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법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이것이 곧 법의 모든 속성, 모든 측면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환원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다.

물론, 많은 경우에 법은 답답하고 불만스럽다. 흔히 말하듯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며, 법이 적용된다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특히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 요컨대 법과 정의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레나타 살레츨(Renata Salecl)이 지적하듯이 민주주의는 이 법과 정의의 분열을 인정하 위에 작동한다. 반면에 전체주의는 법과 정의의 이 괴리를 회피하고, 법을 정의에 종속시키는 체제이다. 그녀의 이런 논의를 연장해 보면, 거꾸로 정의를 법에 종속시키는 체제는 법치를 표방한 권위주의이기 쉬울 것이다. 전체주의와 법치를 표방한 권위주의에선 법에 의한 통치가 자의적인 통치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근현대 민주주의에서 ‘입법자’와 ‘법의 (이중의 의미에서의) 주체’는 일치하지만 ‘법집행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법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점도 짚게 된다. 폭력을 비판하는 유명한 논의에서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법보존적’ 폭력과 ‘법정립적’ 폭력 개념을 통해 법과 폭력의 내재적인 연관성 또는 사실상의 일체성을 보여준 바 있다. 요컨대 법의 기초 자체가 폭력이다. 그런데 이 법정립적 기능을 하는 폭력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에 기대어 보자면 상호적(호환적) 폭력의 무한한 악순환을 중지시키는 정초적 폭력이기도 하다. 이 폭력에 의해 정립된 법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배제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평화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다음 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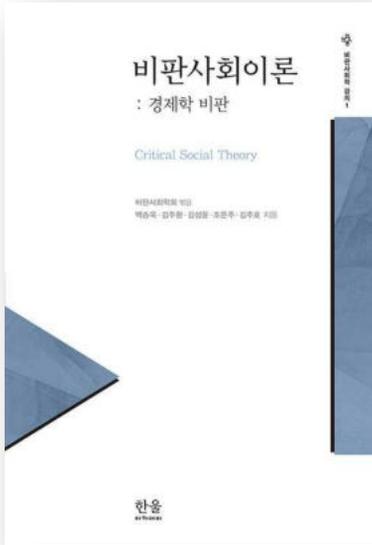
그러므로 갈등이 일반화되고 치열해지는 현재의 맥락에서 법의 정당성과 신뢰 가능성, 그에 기초한 법의 권위는 더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은 안 그래도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이런 법의 덕목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과한 말일까. 세칭 ‘대장동 사건’은 이런 과정과 경험의 화룡점정일지도 모른다. 진상이야 무엇이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변호사였다 검사 출신, 나아가 판사 출신 등 하나같이 법조계 인사들임을 볼 때, 게다가 촛불집회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특별검사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카프카의 소설 <소송(심판)>에서 부조리한 권위의 재판관이 외설적인 책을 몰래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요제프 K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든다. 지젝(Slavoj Žižek)은 이를 두고 법의 외설적 이면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했다.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던 법의 외설적 속살을 이 사건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성숙한 시위문화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외신의 찬탄을 한 몸에 받았던 한국 사회에서 법의 비애는 깊어지기만 해왔다. 그것은 사실 법과 마주한 우리들의 비애일 터. 그런데 이 비애는 앞으로도 더 깊어만 갈 것 같다. 신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듯 보이고, 인기 높은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내의 위계도 아무렇지 않게 흔들려 한다. 당장의 이익과 특정 목적을 위해 조변석개처럼 당헌을 바꾸거나 무시하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일이다. 다수의 지지 세력을 등에 업거나 권력자의 심중에 올인하는 차이 정도는 있으려는가.

불편부당하면서도 순리에 부합하는 법(法)이 물(水)이 흐르듯이(去) 순리에 따라 제정되고 순리에 맞게 시행됨으로써 신뢰와 권위를 되찾을 때 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비애는 잦아들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의 관대함과 원칙의 유연함 또한 가능할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과 <안티고네>를 다시 읽고 새삼 오이디푸스와 크레온의 비극적 운명을 곰곰이 생각하는 이유다.

(끝)

회원신간소개



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

한울, 2022년 7월, 288쪽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외 / 비판사회학회 역음

비판사회학회에서 '비판사회학' 강의 시리즈로 발간한 이 책은 고전사회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와 더불어, 현대사회이론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가로 미셸 푸코와 뤼크 볼탕스키를 다룬다. 경제학의 핵심 논점을 파고들어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비판' 행위를 중심으로 사회학 이론을 설명한 이 책은 사회학 연구자들은 물론 사회문제와 사회현상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한 생각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로는 백승욱(중앙대), 김주환(동아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조은주(전북대), 김주호(경상국립대)가 참여했다.

목차링크



세계화와 사회변동

한울, 2022년 7월, 368쪽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외 / 비판사회학회 역음

이 책은 전 지구적 시각에서, 그리고 좀 긴 역사적 시점을 유지하면서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는 사회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학계에서 잘 다루지 않고, 특히 전 지구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변동은 '사회가 변동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두 단어 '사회'와 '변동'은 그렇게 자명하지 않다. 이 책은 '사회변동'을 사회학적으로 재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로는 백승욱(중앙대),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박찬중(충남대), 윤종희(경희대), 김명수(전남대)가 참여했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기업사회 일본과 노동운동의 형성

북인더갭, 2022년 9월, 428쪽

이종구(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성공회대 명예교수이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초빙석좌교수인 이종구 교수가 일본 노사관계의 사회사를 고찰하였다. 노동운동 및 일본지역학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를 해온 저자는 도쿄대 유학시절부터 일본 노사관계의 현장을 오가며 수행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총동원체제, 미군정의 전후개혁, 고도성장기, 장기불황기에 이은 최근까지 기업사회 일본과 그에 대응해온 노동운동의 형성사를 치밀하게 재구성한다. 일본적 노사관계가 전개돼온 과정을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에 입각해 조사함으로써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 일본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링크

동남아시아의 건강보장(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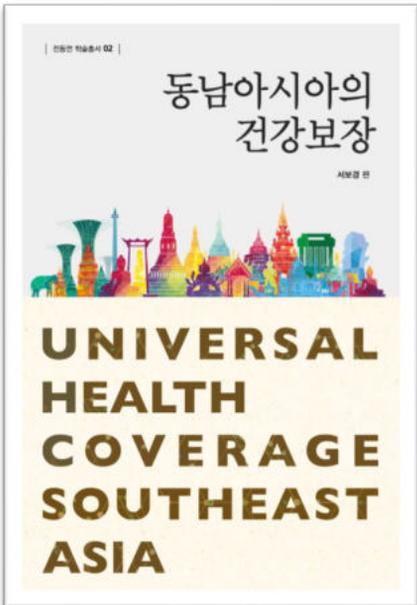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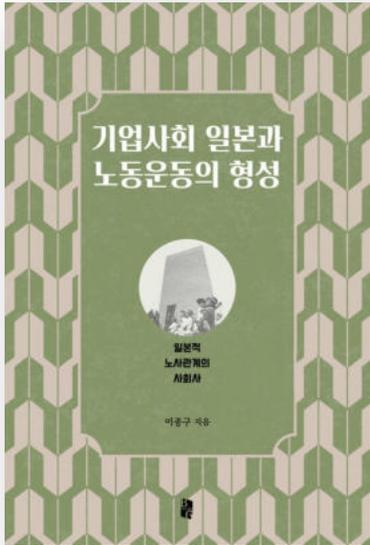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7월, 272쪽

서보경(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편

이 책은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두 번째 학술총서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인 "사람중심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보건·복지 연구"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지난 3년간 연구팀에서는 그간 보건학과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지역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내고자 했다. 이 책에 참여한 저자들은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보건의료 연구자는 아니지만,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의 현황과 함의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저자로는 서보경(연세대), 김정현(전북대), 김주영(전북대), 김형준(강원대), 김희숙(전북대), 백용훈(단국대), 전제성(전북대)이 참여했다.

모두가 자유롭게 다운받아 읽을 수 있다.

다운받기



신입회원

(6월~9월)

- | | | | |
|-------|----------------------|-----------------------|----------------------------|
| ■ 정회원 | 하지우(서울대)
박훈덕(서강대) | 박천웅(전북대)
오지민(서강대) | 류기락(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현아(서울대) |
| ■ 준회원 | 홍단비(연세대)
김수진(대구대) | 윙혜연(성균관대)
박승원(홍익대) | 장인하(서울대) |

회원현황

(10월 15일 현재)

- 총회원 286명: 정회원 252명, 준회원 18명, 특별회원 13명, 기관회원 3개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 2022년 7월 8일. 하계학술대회 준비 실무회의
- 13일. 7월 운영소위 회의
- 2022년 8월 18일. 하계 학술대회(~19, 전북대학교)
- 23일. 8월 운영소위 회의
- 2022년 9월 15일. 5차 운영위원 전체회의
- 21일. 9월 운영소위 회의
- 2022년 10월 15일. 6차 운영위원 전체회의
- 25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2022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 | | | |
|----------------------|-------------------|-----------------|
| 회장 임운택(계명대) |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 부회장 서동진(계원예대) |
| 운영위원장 홍성태(고려대) | 연구위원장 이정연(서울여대) |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
| 연구위원 김명수(전남대) | 연구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
| 연구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 | 연구위원 육주원(경북대) | 연구위원 이태정(성공회대) |
| 연구위원 전윤정(국회 입법조사처) |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 연구위원 조은주(전북대) |
| 정책위원 강민형(연세대) | 정책위원 김재형(방송통신대) | 정책위원 김주호(경상국립대) |
|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 정책위원 박치현(대구대) | 정책위원 백영경(제주대) |
|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 정책위원 이도훈(연세대) | 정책위원 이정은(창원대) |
| 정책위원 정수남(전남대) | 정책위원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 |
|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

■ 편집위원회

- | | | |
|--------------------------------------|-----------------|--------------------|
| 편집위원장 주은우(중앙대) |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 편집위원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
|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 김민정(성공회대) |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
| 편집위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 편집위원 김철효(전북대) |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
| 편집위원 유형근(부산대) |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
| 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 |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
|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 편집위원 최 현(제주대) |
|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 |
|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 |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
|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 | 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 |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1) 연 24만원 (월2만원) | (2) 연12만원 (월1만원) |
|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평사회학회)